

日帝下 韓國工業의 發達과 그 地域變化에 關한 研究

黃 載 磨

《目

1. 序 論
2. 舊韓末의 工業發達과 地域展開
3. 日帝下의 工業發達과 地域展開
- (1) 日帝 初期(1910~1919)

次》

- (2) 日帝 中期(1920~1929)
- (3) 日帝 末期(1930~1945)
4. 日帝 末期 工業의 業種別 地域展開
5. 結 論

1. 序 論

韓國은 最近 世界에서 類例가 없는 經濟的 高度成長을 이루며, 이처럼 추세는 앞으로 다시 持續될 것이豫想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간의 經濟的 發展의 先導的役割을 담당해 온 工業 部門에 대하여, 그 發達過程과 地域의 立地 展開의 變動을 要因別로 追求하여 계속될 앞날의 座標를 設定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課題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本研究는 그 1次의인 課業으로, 手工業形態에서 機械에 依한 工場制 工業이 始作된 舊韓末부터 日帝末에 걸쳐 韓半島上에서 展開했던 工業의 發達過程과 그 地域의in 立地 變動에 關한 要因들을 追求하고, 그 속에 숨겨진 法則性을 宪明해 보고자 試圖된 것이다.

本研究의 範圍는 近代의 意味의 工場工業이 胎動하기 始作한 舊韓末에서 日帝末에 이르기까지 韓半島上에서 展開했던 工業(製造業)活動 全部를 對象으로 하였다.

또한 研究의 편의를 위하여 舊韓末과 日帝植民期間을 다음과 같은 몇段階의 時期로 區分하여 考察키로 하였다. 즉, 舊韓末; 開港期에서부터 1906年 統監府가 設置되기 前까지, 日帝初期

; 1906年 統監府 政治의 開始로 부터 1919年 土地調查 事業이 完遂되는 時期까지의 이론바 植民地 統治를 위한 基礎準備期間, 日帝中期; 1920年에서 1930년까지의 時期로 韓半島是 그들의 商品市場 또는 原料와 食糧의 供給地化 함으로써 植民地 收奪政策이 本格化된 時期, 日帝末期; 1931年の 濟洲事變 勃發에서부터 1945年 2次世界大戰의 終結에 이르기까지의 時期로 그들의 戰爭遂行을 위하여 植民地 收奪을 強化하고 韓半島是 兵站基地化시킨 時期등이 그것이다.¹¹

本研究의 資料는 朝鮮總督府의 朝鮮統計年報各年號,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支部의 朝鮮經濟年報各年號, 東亞經濟時報社의 朝鮮銀行會社組合 要錄各年號등을 주로 使用하였고, 그 外에 참고로 多數의 關聯文獻을 利用하였다.

研究方法은 以上의 各種 資料를 各期別, 業種別, 規模別로 分類 整理하고, 이들을 當時의 各種 立地要因들과 綜合的으로 比較 分析하여, 工業의 地域展開에 關한 實相을 探하고, 그 內在的 法則性을 宪明해 보고자 한다.

2. 舊韓末의 工業發達과 地域展開

產業革命 以後의 西歐 文化가 大量으로 아시

1) 趙慶福, 1964, 韓國經濟史, pp. 280~290 및 崔虎鎮, 1970, 韓國經濟史, p. 234

아이디어에 上陸한 것은 19세기 中葉 以後이며, 韓國에서는 1876年 江華島條約을 先頭로 한 1890年代 부터의 世界各國에 對한 開港이 그 始發點이라 볼 수 있다.²⁾

이러한 西歐文化의 上陸에 따라, 革新勢力들은 政府와 民衆에 對한 啓蒙뿐 아니라, 西歐의 科學技術과 制度의 導入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思想이 점차 官民에 反映되어 1880年代에 들면서 政府는 制度의 改革과 함께 西歐의 工業機械를 導入하여 殖產興業政策을 推進하기에 이르렀다.³⁾

즉, 1883年에 機械局과 典圖局을, 1885年에 製造局을, 1887년에 造紙局과 矿務局을 차례로 設置하고, 각局 밑에 政府의 直轄工場을 建設하였다.⁴⁾

武器製造를 管掌하는 機器局은, 三淸洞北倉에 廠을 세우고 銃砲, 火藥등의 近代的인 武器製造를 試圖하였다. 本來近代的인 武器製造에 대하여서는 大院君때부터 試圖해 왔으며, 開港후는 兩次에 걸친 派日修信使 및 紳士遊覽團을 通過日本의 兵器工場을 視察해 하였다.

1881年 金允植은 69名의 青年을 帶同하고 中國 天津의 機器廠에서 武器製造 技術을 學습하였다. 이 人力이 北倉 機器廠의 根幹을 이루었으며, 그 外에 中國人 技術者 4名을 別途로 고

용하였다.⁵⁾

政府는 1883年 典圖局에 貨幣製造를 위한 造幣工場을 苑洞에 建立하였다. 西歐式 造幣工場에는 獨逸에서 機械와 監督 및 技術者 3名을 雇用하였다. 그 후 苑洞工場은 1885年 장소가 협소하여 西大門 西便으로 옮기면서 日本人 技術者 3名을 고용하였다. 1890年에는 仁川에도 典圖局과 造幣工場을 設立하였으나, 1896年 仁川工場과 西大門工場을 모두 龍山으로 옮겨 세웠다. 이 龍山工場은 乙巳條約후 日人 財政顧問이 貨幣製造를 日本 大阪造幣局에 의뢰하면서 폐쇄되었다.⁶⁾

또 1883年에는 政府에 博文局을 設置하고 日本으로부터 印刷機를 수입하여 政府 印刷物과 漢城旬報를 印刷 發刊하였다. 그 뒤에 1885年을 前後하여는 製造局과 造紙局을 設置하고 그 管掌下에 工場을 設立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近代的인 工業이 政府直營工場形式으로 1890年代初까지 각 지역에 設立되기는 하였으나, 工業建設이라는 政府의 의욕에 비하여 그 成果는 极히 미미하였다. 그 原因은 첫째로近代工業이 定着할 수 있는 各種 經濟的 興件(資本 技術 經營등)이 成熟되지 못하였고, 둘째는 急迫한 國內外 情勢와 政界의 不安을 들수 있다.

표 1 舊韓末의 主要製造業體

業體名	設立年代	代表	備考
大韓織造工場	1897	安駒壽	綿布生產目的]工場設立前에 中止
李麻製絲會社	1898	,	李麻絲生產目的
韓英書院 實業工場	1895	尹致昊	韓英書院 學生들의 募用 織造工場, 뒤에 松高實業으로
鍾路織造社	1899	閔丙奭	綿布生產目的, 日產 70尺, 鍾路白木廳商人들 中心
金德昌織造工場	1902	金德昌	長沙洞에 位置, 漢陽木, 綿布, 양말生產, 聯工 40餘名
大韓婦人會紗織工場	1902		龍山 양점소에 紗織機設置
煙草工場	1903	崔錫肇	元露路工場, "eagle"生產
沙器製造所	1902	李容翊	
群小家內工場(多數)	1890— 1910		光熙洞에 集結해 있었음. 이들이 合同으로 京城紗織株式會社設立→京城紗織株式會社

※ 資料：皇城新聞 및 京城府史 第2卷

2) 韓國經濟史學會, 1973, 韓國史時代區分論, p. 202

3) 趙璣璣, 1974, 韓國企業家史, p. 52

4) 統署日記 第27冊 光武 17年(1891) 1月 11日

5) 崔南善, 歷史日鑑 上卷 p. 117

6) 甲賀宜致, 1904, “近世朝鮮貨幣及典圖局의 沿革”, 朝鮮總督府, 月報, 4卷 12號

그러나 1890年代 후반부터는 日本 商人們의 橫暴에 對抗하여 民族 商人과 手工業者들이 近代工業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면서 技術導入에 의한 工場 設立이 늘어나기 始作하였다. (표 1 參照)

1911年末 韓國內에 設立된 工場(從業員 10名以上)은 모두 1270個이며, 그 중 民族系가 86個로 6.8%이며, 나머지는日本人系였다. 이들 民族系 工場들의 業種을 보면, 窯業 20, 精米 15, 鐵工 13, 織物 10, 製紙 9, 煙草製造 8, 其他製粉 印刷 製革등이었다.⁷⁾

結果的으로 舊韓末의 近代工業은 政府의 殖產興業政策에 의하여 胎動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發達은 极히 微微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出發된 近代工業은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民族企業들에게 工場 設立의 轉機를 마련해 주었고, 그 結果가 日帝植民期間中에도 民族企業으로서의 命脈을 유지해 나가는 기초를 형성해 주었다고 믿어진다.

한편, 서울이라는 地域을 中心으로 胎動했던 이들 近代工業의 立地는 그 뒤 京仁地域, 크게는 韓半島 全體의 工業立地의 中心軸을 形成해 나가는 原動力 또는 慣性(inertia)의 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日帝下의 工業發達과 그 地域展開

資本主義의in近代化가 아시아地域에서는 가장 앞장섰던 日本이 그 侵略의 첫 손을 뻗은 곳이 바로 韓半島였다. 日本이 韓半島를併合한 후 取한 韓國經濟의 構想은 落後된 封建的 經濟秩序를 파괴하고 日本經濟의 發展에 奉仕케하는 從屬經濟體制로 끝는다 있었다.⁸⁾

따라서 日帝 初期의 經濟政策 中心은 農業과 鎌業을 中心으로한 經濟的 收奪과 日本商品의 市場化에 있었으며, 近代的 工業의 發展은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반 이후에는 政策

의 變化에 따라 急速한 工業의 發達을 보게 되나, 이 역시 日本의 軍國主義的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軍需工業 中心의 畸型的인 工業 發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日帝期間中의 工業發達을 工場數 및 從業員數의 增加로 考察해 보자. 工場은 1915年

표 2 日帝下의 工業 成長

	工場數	從業員數
1 9 1 5	782	24,539
1 9 3 0	4,261	83,900
1 9 4 3	14,856	549,751

資料 : 賀田直治(1920), 朝鮮の 工業問題

朝鮮銀行(1948), 朝鮮經濟年報

의 782個에서 1943年에는 14,856個로 19倍, 從業員數는 同期間中 24,539人에서 549,751人으로 22倍로 각각 增加하고 있다. 특히 그 增加는 후반에 와서 더욱 현저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日帝期間中 工業을 初期 中期 末期⁹⁾에 걸쳐 그 發達과 地域展開를 차례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日帝 初期(1910~1919)

前述한 바와 같이 初期에 있어서 日帝植民施策의 中心은 어디까지나 植民地收奪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 작업이었으며, 工業은 2次的인 것 이었다.

이러한 中에서도 日帝는 1910年 12月 會社令을 公布하여, 鎌業과 商工業의 규제에着手하였다. 그 目的是 日本의 植民地 經營 政策에 따라 農水產物의 加工 및 鎌產物 開發등 日本 國內產業의 育成을 위한 原料加工과 食糧增產을 유도하는 方향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부문에 차본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보다 具體的으로 考察해 위하여 日本初期(1910~1919)에 設立된 主要 製造業體를 分析해 보자. (표 3 참조)

우선 同期間中에 設立된 主要 製造業體(資本金 20萬圓以上)의 業種을 보면, 酿造 精米等 食

7) 서울特別市, 1979, 서울六百年史, p. 518

8) 韓昌浩, 1976, “日帝下의 韓國工業에 關한 研究”, 日帝의 經濟侵略史, p. 134.

9) 黃載璣, 1973, 韓國工業의 發達と 地域의 展開, 日本東北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표 3 初期에設立된主要製造業體

事業體名	位 置	設立 年度	資本 萬圓	代表者
朝鮮皮草	永登浦 堂山洞	1911	100	日本人
朝鮮綿鐵	木浦 壽町	1911	200	"
朝鮮鐵鑄	鎮南浦	1915	"	"
朝鮮製革	大田 南面連孝里	1917	20	"
朝鮮燐寸	仁川 金谷里	1917	50	"
朝鮮織鐵	釜山 凡一洞	1917	500	"
朝鮮製鐵所	黃海道 黃州郡	1918	"	"
日本製鐵所	京城 本町	1918	20	"
朝鮮製油	木浦 海岸通	1918	50	"
東洋畜產興業	京城 義州通	1918	50	"
王子製紙朝鮮工場	新義州	1919	"	"
南北棉業	木浦 海岸通	1919	500	"
特許シエント互製造	京城 漢江通	1919	50	"
朝鮮生絲	京城 黃金町	1919	500	"
朝鮮蠶絲	京城 大島町	1919	50	"
龍山工作	京城 漢江通	1919	20	"
西洋綠綿	鎮南浦 碑石里	1919	100	朴泳孝
京城紡織	永登浦 驛前	1919	100	金季洙
朝滿染料	新義州 本町	1919	100	日本人
朝鮮肥料	新義州 緑町	1919	40	"
北鮮醬油	咸北 韓城	1919	30	"
元山	元山 泉町	1919	30	"
朝日釀造	仁川 桃山町	1919	100	"
大邱酒造	大邱 三笠町	1919	25	"
南鮮釀造	馬山 石町	1919	20	金轍鉉
群山酒造	群山 橫田町	1919	60	"
朝鮮精米	京城 和泉町	1918	50	"
加藤精米	鎮南浦 旭町	1918	100	"
論山精米	論山 本町	1919	50	"
朝鮮印刷	京城 西小門町	1919	20	"

資料：東亞經濟時報社, 1925, 朝鮮銀行金社組合要錄
資本金 20金圓以上製造業體

品加工이 43%나 되며, 다음으로 繊維가 33%라는 높은 비중을 갖는다. 특히 당시로서는 巨額의 資本인 100萬圓以上의 投資로 設立된 10大事業體 중 3개가 섬유 업종에 속하여 기타 업종은 극히 영세한 業體에 不過하다.

이러한 業種의 構成은 첫째로 現地(韓國)에서 原料의 取得과 製品의 消費가 용이한 業種, 둘째로 大資本을 要하지 않고 現地人들의 강하고 單純한 勞動力を 充分히 활용할 수 있는 業種,

셋째는 植民本國(日本)의 國內 製造業과는 競合되지 않는 部門을 중점적으로 育成하였음을 立證하고 있다.¹⁰⁾

결과적으로 自國 經濟의 保護와 植民地 收奪이라는 經濟政策의 目的下에서 初期의 工業이 建設되기 시작하였다고 分석되어 진다.

표 4 工產額의 地域別分布와 變動

	1920	1930	1940
全 國	千圓 204,385 (%)	千圓 280,964 (%)	千圓 1,873,634 (%)
京 畿	27.5	23.4	18.9
江 原	8.0	3.2	5.4
忠 北	2.1	1.7	0.9
忠 南	4.7	3.8	1.7
全 北	4.5	4.1	2.8
全 南	7.5	8.3	4.9
慶 北	10.2	11.2	5.2
慶 南	9.4	11.7	8.6
黃 海	4.8	4.2	6.8
平 南	8.4	14.6	8.7
平 北	6.5	4.5	3.4
咸 南	4.3	5.8	23.3
咸 北	2.1	3.5	9.4

資料：朝鮮總督府, 朝鮮統計年報, 各年號

다음으로 初期 工業의 地域展開를 표 4를 참고로 考察해 보면, 全 工業生產額의 27.5%가 京仁地域에, 19.6%가 慶南北에, 14.9%가 平南北에 分布되어 있다.

이렇게當時의 工業이 3大地域에 62%나 集中하여 분포하게 된 주요 原因은 첫째로, 이를 3大地域은 오랜 傳統을 갖는 韓半島의 中心地域으로 人口의 높은 集中地를 이루며, 특히 서울을 中心으로 하는 京畿는 舊韓末에 이미 近代的 工業이 發生하였던 우리나라 工業의 發源地이며, 둘째로當時의 唯一한 大衆交通手段인 京釜 京仁 京義등의 鐵道가 서울을 上位 結節點으로, 仁川 大邱 釜山 平壤 新義州를 下位 結節點으로 形成하고 있었으며, 셋째로當時의 工業이 主로 日本들의 資本과 技術에 의하여 建設되었으며, 이를 地域은 바로 日本 居留民들의 大量 進出地였다는 點등을 열거할 수 있다.

10) 韓昌浩, 1976, 前揭書, p. 146.

따라서 日帝 初期의 韓半島 工業의 地域 展開는 傳統 交通 人口등 本源的 立地要因의 基礎위에 植民地 經營이라는 外的 要因이 強하게 作用하여 形成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2) 日帝 中期(1920~1929)

이 期間은 政治的으로는 3·1運動의 결과로 소위 武斷政治가 지양되고 文化政治가 표방되었던 時期이며, 經濟的으로는 基礎調查가 끝나고 韓半島로 하여금 그들의 原料나 食糧의 供給과 工產品의 消費市場 역할을 담당케 하는 政策에 重點을 둔 時期였다. 產米增殖計劃이나 新鑄業令의 施行등이 그 代表的인 政策例이다.

따라서 工業에 대한 日帝의 關心도 以上의 經濟政策의 태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次大戰의 終戰에 따른 日本資本主義 内部의 事情에 따라 工業政策도 初期에 비하여는 다소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1次大戰의 戰時需要로 急激히 張창하였던 日本資本主義는 전후의 一大不景氣를 맞게 되고, 여기서 遊休資本은 韓半島를 그들의 不景氣打開를 위한 進出地로 생각하게 된다. 이에 발맞추어 日帝는 1920年 종래 會社 設立을 許可制로 하던 會社令을 폐지하고, 關稅制度를 改革하여 資本進出을 촉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日帝의 政策에 따라, 初期에 比하여 많은 工場이 韓半島에 建設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소비재 경공업을 중심으로하는 中·小工場이 많았다. 다음에서 이점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자.

즉, 中期의 工業은 初期에 比하여, 工場數는 5.5倍, 從業員數는 3.5倍로 각각 成長되었다. 이러한 工業建設의 大部分이 日本人들의 資本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次大戰 후 日帝의 資本進出을 충분히 立證해 주고 있다.

다음에서 當時의 工業을 規模·業種·設立時期別로 살펴 보자. (표 5 참고)

1930年 現在의 4,261個 工場中 從業員數 100人이상의 工場은 1.6%인 70個에 불과하였고, 200人이상의 工場은 33個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全國 工場의 98.4%가 從業員數 100人미만의 中小工場이였다.

또한 이들 從業員 100人이상 工場들의 設立時期와 그 業種을 考察해 보면, 1910年代에 31個, 1920年代에 70個의 工場이 設立되어 1920年代에 建設된 工場이 1910年代의 倍以上되며, 특히 纖維 化學 食品 등 業種이 그 大宗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 分布 地域을 보면, 生絲 編織物 精米 고무등 業種의 工業이 西南部

표 5 業種別·設立時期別·主要 工場

(1935年 現在 從業員 100人以上 工場)

設立年代	規 模 別 (從業員人)	全工業	食 品	纖 維	金 屬	機 械	鑄 業	化 學	木 製	印 刷
1910年代	100~199	13	2	2	1	4	—	1	—	3
	200以上	18	2	6	2	1	1	4	—	2
	計	31	4	8	3	5	1	5	—	5
1920年代	100~199	37	3	10	2	2	3	13	2	2
	200以上	33	4	18	—	1	—	10	—	—
	計	70	7	28	2	3	3	23	2	2
1930年代	100~199	44	6	7	—	—	3	27	1	—
	200以上	34	7	12	1	—	4	10	—	—
	計	78	13	19	1	—	7	37	1	—
合 計	100~199	94	11	19	3	6	6	41	3	5
	200以上	85	13	36	3	2	5	24	—	2
	計	179	24	55	6	8	11	65	3	7

資料：朝鮮總督府殖產局, 朝鮮工場名簿, 1937年에 依하여 作成.

의 主要都市들에 보편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반면, 漁油肥 工業이 東海 北部海岸을 따라 集中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볼 때 中期 工業의 특색도 역시 初期과 같이, 原料의 取得이 용이하고 영세 차본으로 運營이 可能하여 단순하고 값싼 노동력을 利用하여 生產하고 生產品은 그 地域에서 消費할 수 있는 業種이 中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외의 특수 基幹產業으로는 赴戰江 發電所의 建設로 비롯된 朝鮮窒素肥料 興南工場과 小野田시멘트 川內工場을 들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中期 工業의 各道別 分布를 表 3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면, 京畿 23.4%, 平南北 19.1%, 慶南北 22.9%로, 如前히 3大地域을 中心으로 集中分布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初期에 比하여 京畿의 比重이 低下된 反面, 慶南北의 比重이 높아진 것 이외에는 큰 變化를 볼 수 없다.

(3) 日帝 末期(1930~1945)

1920年代末 美國에서 비롯된 經濟恐慌을 계기로 世界經濟가 恐慌에 접어들자, 日本資本主義는 1931年 滿洲에 대한 武力侵略을 강행함으로써 國內 위기를 극복하고 資本進出의 길을 打開하였다. 또한 1931年 “重要產業 統制法”을 公布하여 統制經濟를 強化함으로써 大企業의 獨點을 응호하고 中小企業의 물력을 촉진하여 갔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많은 中小企業들은 그 統制圈을 벗어나기 위하여, 大企業들은 恐慌을 벗어나기 위하여 韓半島에 進出하게 된다.

이에 발맞추어 朝鮮總督府는 内部의 統治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日本資本의 進出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한편, 1937年에 시작된 中國本

土에 대한 侵攻에 발맞추어 모든 經濟의 戰時態勢를 強化하여 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經濟體制가 登場하게 됐고, 韓半島는 新經濟體制속에서 “大陸前進 兵站基地化”라는 方向에 따라 本格的인 重化學工業의 建設이 始作됐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40年代에 들어서 太平洋 戰爭과 더불어 더욱 加速化 되어가기만 하였다. 따라서 日帝 初期 및 中期의 工業이 消費材 輕工業 製品 生產을 中心으로 미미한 發展을 지속해 온데 대하여, 末期의 工業은 그 性格과 規模에 있어서 全혀 새로운 樣相을 띠고 있다.

本期間中에 發達된 主要業種은 製鐵 製鋼 精鍊 化學 油脂 시멘트 機械등을 中心으로 하는 重化學 業種으로, 소위 말하는 軍需工業의 性格을 띠는 部門들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1930年부터 1940년까지 工業의 業種構成 變化를 살펴 보기로 하자(표 6). 즉, 1930年的 業種構成을 보면, 食品 57.8%, 纖維 12.8%로 基本消費材 生產工業이 무려 70.6%라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 金屬 機械 化學은 合이 16.5%에 不過하다. 그러나 1935年에 와서는 62.6%대 23.0%로 構造가 變化하였고, 1940年에는 35.3%대 46.2%로 역전된 結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烟業과 木製까지를 合하면, 重化學工業은 50%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前記한 바와 같이 韓半島의 工業이 “大陸前進 兵站基地化”라는 新經濟體制속에서 戰時態勢 強化에 휘말려, 韓民族自體의 立場은 全혀 고려되지 않은 方向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었음을 如實히 證明해 주고 있다. 한편, 工業의 性格 規模 業種이 一變된 것과 同時に 工業의 地域的 分布에도 커다란 變化를 초래하게 됐다. 표 3과 그림 1을 中心으로 具體的인 地域 變化를 考察해 보기로 하자.

표 6 工業 生產額의 業種別 變化

年份	業種	全 工 業	食 品	纖 維	金 屬	機 械	窯 業	化 學	木 製	印 刷	其 他
1930年		263,062	57.8	12.8	5.8	1.3	3.2	9.4	2.7	3.1	3.9
1935年		634,355	51.4	11.2	3.4	1.0	2.4	18.6	2.3	1.9	7.8
1940年		1,498,570	21.9	13.4	9.1	3.6	2.9	33.5	1.4	1.3	12.9

資料：全國經濟調查會 朝鮮支部, (1939, 1941, 1942), 朝鮮經濟年報.

※ 其他에 電氣 浮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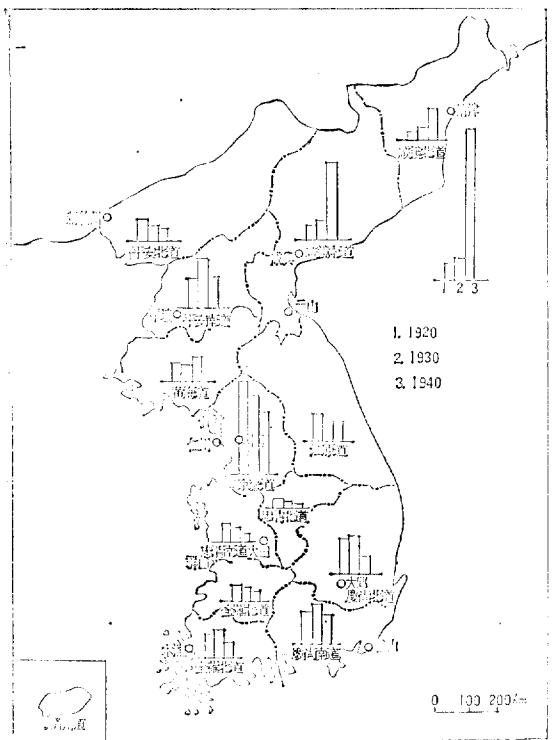


그림 1 工業의 地域展開와 變化(1920~1940)

우선 1930년에 全國工業의 23.4%가 京畿에, 22.9%가 慶南北에, 19.1%가 平南北에 集中分布되었던 때면이 1940년에는 一變하여 32.7%가 咸南北에 集中分布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

표 7 工業生產額의 地域別 增加(1931~1940)

	1931年(A)	1940年(B)	B/A × 100
全 國	(千圓) 252,924	(千圓) 1,498,277	592
京 畿	58,678	305,659	521
忠 北	3,024	11,820	391
忠 南	7,901	23,431	279
全 北	10,341	31,461	304
全 南	16,825	70,082	417
慶 北	27,965	81,357	291
慶 南	31,123	139,691	449
黃 海	9,795	126,110	1,287
平 南	27,270	121,688	446
平 北	10,523	46,925	446
江 原	12,903	45,929	356
咸 南	30,796	334,745	1,087
咸 北	5,763	159,378	2,766

資料：全國經濟調查會 朝鮮支部(1939, 1942), 朝鮮經濟年報

다. 咸南北은 1930年に 불과 9%라는 工業의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0년이란 짧은期間에 32.7%라는 急增을 이룩한 것이다.

특히 1931年에서 1940년까지의 10年間 地域別 工業 生產額의 實質적인 增加를 표 7에서 살펴보면, 咸北 2776%, 咸南 1,087%, 黃海 1287%로 增加한 반면, 餘他의 道들은 300~400%의 增加에 머물고 있다. 咸南北 黃海道의 경우는 全國 平均增加率 592%의 그의 2배가 넘는 增加를 보이고 있어서, 同期間中 工業生產額 增加의 절대적인 우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初·中期의 工業이 消費財 輕工業을 中心으로 京畿 平南 慶南北地域에 展開되었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末期의 工業은 鐵鑄石 石炭 石灰石 木材 水力 水產物等 天然資源이 豐富하고 戰略的 目的地(滿洲 中國等)에 接近된 東北地域에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本格的인 發達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結果的으로 日帝 期間中에 發達한 韓半島 工業의 全體的인 立地動向은 그 初·中期에 있어서는 人口가 稠密한 西南部의 傳統的 地域을 中心으로 市場指向性의 消費財工業이 經濟的 要因에 따라 서서히 成長되어 왔다. 그러나 末期에 있어서는 大陸前進 兵站基地化라는 강한 經濟外的 要因에 의하여 東北部의 原料 賦存 地域을 中心으로 重化學工業의 急激한 成長 發達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韓半島工業分布의 中心軸은 西南部에서 東北으로 크게 轉移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되었다.

4. 日帝 末期 工業의 業種別 地域展開

다음으로 日帝 末期의 主要 業種別 工業에 대하여 그 地域展開를 中心으로 考察해 보자. (표 8 참고)

食品工業…食品工業의 全國에 걸친 分布를 살펴보면, 京畿가 全國의 20.4%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이 平南 18.0%, 慶南 16.8%, 慶北 8.0%, 全南 7.8% 순으로 되어 있다. 그 分布의 特色은 當時의 食品工業이 精米 醬油 酿造

표 8 業種別 工產額의 道別 構成(1940年末 現在)

	全 工 業	食 品	纖 維	金 屬	機 械	窯 業	化 學	木 製	印 刷	其 他	
全 國	(千圓) (%)	1,498,570 20.4	328,353 20.4	201,352 39.2	136,092 5.7	53,226 50.5	43,338 9.5	501,750 7.3	21,061 29.1	19,374 72.5	194,030 33.2
京 畿		0.8	1.8	1.1	0.2	0.1	0.2	0.1	0.2	0.3	1.4
忠 北		1.6	2.7	3.5	0.1	0.6	0.6	0.4	1.4	1.0	2.1
忠 南		2.1	4.0	2.2	0.1	1.9	1.8	0.8	1.8	1.2	3.5
全 北		4.7	7.8	11.9	0.2	2.2	1.9	1.2	4.9	1.6	5.5
全 南		5.4	8.0	7.8	0.5	3.8	1.5	1.5	10.4	5.6	12.9
慶 北		9.3	16.8	17.4	2.5	12.4	11.3	2.6	15.5	6.2	8.7
慶 南		8.4	5.0	2.5	39.5	2.9	23.2	5.5	2.1	1.0	5.8
黃 海		8.1	18.0	7.6	1.7	7.4	15.4	2.6	5.8	4.1	9.9
平 南		3.1	4.1	2.7	1.5	3.3	3.0	2.9	9.9	1.4	3.3
平 北		3.1	3.5	1.8	0.1	0.6	1.0	4.2	2.0	0.6	4.2
江 原		22.4	5.1	1.9	9.3	10.5	17.5	53.6	11.8	2.1	8.4
咸 南		10.6	2.8	0.4	38.6	3.8	13.1	17.3	5.1	2.4	1.1
咸 北											

資料：全國經濟調查會 朝鮮支部(1942)，朝鮮經濟年報，

※ 其他에 電氣·까스업이 포함됨。

水產物加工等 商品으로서 市場圈이 극히 좁고原料指向的 工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人口가 조밀하고, 소비력이 높은 日本人들이 大量으로 居住하고 있는 地域에 集中分布하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의 工場을 들면, 1933年 永登浦에 設立된 朝鮮麥酒 麒麟麥酒, 1935年 鍾路에 設立된 朝鮮麵子, 西大門의 朝鮮精米, 平壤 船橋里의 平安釀造, 馬山의 昭和酒類, 釜山 凡一洞의 大鮮釀造, 仁川의 朝日釀造, 群山의 加藤精米, 甘浦의 龍野罐詰¹¹⁾ 등이 그것이다.

纖維工業…纖維工業의 全國에 걸친 分布 比를 살펴보면, 京畿 39.2%, 慶南 17.4%, 全南 11.9%, 慶北 7.8%, 平南 7.6% 등으로 되어 있다. 그 中心都市는 서울 大邱 釜山 平壤 光州 木浦등으로 人口가 稠密하고 原料의 集散이 용이한 傳統的인 都市 地域들이다.

또한 本 業種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手工業이서 비롯된 業種이므로 어느 業種 보다도 民族資本에 의한 工場들이 多은 것도 특색이다. 京城紡織, 朝鮮絹織, 海東織物, 泰昌織物, 三共 양말, 朝鮮メリヤス, 大同織造 등 當時로서는 비교적 規模가 큰 섬유工場들이 民族企業의 工

場들이었다.

金屬工業…金屬工業의 地域別 分布를 살펴 보면, 黃海 39.5%, 咸北 38.6, 咸南 9.3%, 京畿 5.7%로 되어 있다.

金屬工業의 主軸인 近代的 鐵鋼業의 歷史는 1918年 三菱財閥의 日本製鐵이 黃海道에 兼二浦製鐵所(年產 5萬噸)를 建設操業에 着手함으로써 始作된다. 그뒤 1937年 日本高周波重工業의 城津工場이, 1939年 三菱鑄業의 清津工場이, 1941年 日本窒素肥料의 興南製鍊所, 同年 朝鮮理研金屬의 工仁工場(現 大韓重工業) 1943年 是川製鐵의 三陟工場(現 三和製鐵)등이 차례로 設置되었다.

한편, 1915年 久原鑄業이 鎮南浦에 처음으로 乾式製鍊所를 設置하여 近代的 製鍊이始作되었고, 뒤를이어 元山 興南 龍岩浦 海州 長項(1936年 朝鮮鑄業이 設立한 南韓 唯一의 製鍊所) 등 6개소에 製鍊所가 設置되었다.

이렇게 하여 日本의 戰爭遂行을 위하여 擴張되기 시작한 금속공업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며, 이들 工場은 原料地에 指向되어 立地하는 것이 一般 원칙이므로 大部分이 北韓 地域에 分布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1) 朝鮮總督府 農產局, 1937, 朝鮮工場名簿 및 東亞經濟時報社, 1942, 朝鮮銀行會社 組合要錄.

機械工業…機械工業의 全國에 걸친 分布를 보면, 京畿 50.5, 慶南 12.4%, 咸南 10.5, 平南 7.4%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本業種이一般的으로 綜合工業의 性格이 強한 것이라, 각종 공업이 集中하고 있는 京仁地域, 釜山, 元山과 興南, 平壤등 都市를 中心으로 發達하고 있다.

특히 京仁地域이 全國의 50% 以上을 차지하는 것은 各種計器, 鐵道車輛과 그 用品, 其他鐵工品 工場이 龍山과 永登浦地域을 中心으로 分布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龍山工作 株式會社, 同永登浦工場, 朝鮮計器, 京城電車工場, 京城鐵工所, 文化鐵工所, 朝鮮善平工業(大東工業前身), 京城精工(起亞產業前身)등이 그 예이다.¹²⁾

또한 釜山을 中心으로 한 慶南이 12.4%라는 높은 比重을 갖는 것은當時 全國에 몇개 밖에 안되는 鋼船造船所가 모두 이 地域에 分布하였을 뿐 아니라, 较은 木船도 이 地域을 中心으로 製造되었던 것이 그 理由이다. 즉 朝鮮重工業(現 大韓造船公社)을 비롯, 大韓造船鐵工所, 方魚津鐵工造船所등 큼직한 鋼船造船所가 모두 이 地域에 立地하였을 뿐 아니라, 出口鐵工所를 비롯한 较은大小鐵物工場이 立地하고 있었다.

窯業…窯業의 全國에 대한 比重이 높은 地域을 차례로 보면, 黃海 23.2%, 咸南 17.5%, 平南 15.4%, 咸北 13.1%, 慶南 11.3%, 京畿 9.5%등의 순이다. 窯業은 시멘트 도자기 식기 유리 기와 벽돌등의 제조가 그 중심을 이루는 產業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地域分布에서 몇가지의 相異한 特色을 찾아볼 수 있다. 즉, 黃海咸南北 平南의 경우는 주로 시멘트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京畿는 유리 도자기 식기 기와 벽돌이, 慶南은 도자기 식기 기와가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시멘트와 도자기 식기등은 原料(석회석 고령토 등)地 指向, 유리 기와 벽돌등은 消費地에 指向하여 立地하게 되는 原則이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代表的인 工場들을 예로 들면, 표 9의 시멘트工場 외에도 日本硬質陶器釜山工場, 小佐磁器(釜山), 朝鮮磁器(釜山), 東洋磁器(釜山), 京城煉瓦(典農工場,

표 9 시멘트工場과 그 位置

設立年代	會社名	工場位置
1919年	小野田시멘트 平壤工場	平南 江東部 勝湖里
1928年	小野田시멘트 川內工場	咸南 元山 郊外川內里
1936年	朝鮮小野田시멘트 古茂山工場	咸北 富寧郡 古茂山
1937年	朝鮮시멘트 海州工場, 馬洞工場	黃海 海州·馬洞
1937年	朝鮮淺野시멘트 鳳山工場	黃海 鳳山
1937年	朝鮮鵝綠江水電 平壤工場	平壤
1937年	小野田시멘트 三陟工場	江原 三陟

資料：韓國產業銀行(1958), 韓國의 產業, 第一輯 p. 232

堂山工場), 淺野시멘트 스텝트工場(漢江路), 高木煉瓦(平壤)등이 있다.

化學工業…化學工業의 全國에 대한 比重이 높은 地域을 차례로 보면, 咸南 53.6%, 咸北 17.3%, 京畿 7.3%, 黃海 5.5%, 江原 4.2%의 순으로 되어 있다.當時의 化學工業은 韓國工業의 中心業種(全工業生產額의 33.5%차지)으로 電力과 原料가 풍부한 北韓을 中心으로 크게 發達하였으며, 肥料 油脂 고무 製紙 성냥등의 製造가 大宗을 이루고 있었다.

肥料工業부터 살펴보면, 韓國의 肥料工業은 1930年 1月 赴戰江發電所의 送電開始와 함께 세계 2위의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興南工場이 操業을始作함으로서 비롯된다. 그뒤 1939年 三陟에 石灰窒素肥料工場이, 1940年 朝鮮化學工業의 順川工場이, 同年 日產化學工業의 鎮南浦工場이, 1941年 朝鮮化學肥料 仁川工場이, 1945年 王子製紙 木浦工場등이 차례로 建設되었다.¹³⁾ 이렇게 하여 肥料의 生產能力은 80만톤을 능가하여 國內需要는 물론 餘分을 輸出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油脂工業은 大豆 棉實등 植物油 製造工場도 西南部 地域에 分布하였으나, 정어리가 大量으로 잡히는 東海岸을 따라 動物油 製造가 번창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東海岸地域에는 動物質肥料의 製造工業이 대성황을 이루어當時의 化學工業에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從業員 100人 以上의 工場만도

12) 朝鮮總督府 殖產局, 1937, 前揭書 및 韓國產業銀行, 1958, 韓國의 產業, 第二輯 pp. 240~290.

13) 韓國產業銀行, 1958, 韓國의 產業, 第一輯 p. 189.

표 10 고무工場의 分布(1933年 現在)

	京畿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平南	咸南	合計
工場數 生産額 (千円)	22 1,783	1 74	5 192	4 506	4 25	12 1,495	18 1,186	2 50	68 5,311

資料：朝鮮工業協會報(1935)，第21號에서 作成

※ 工場數 京畿中 서울이 19, 慶南中 釜山이 9, 平南中 平壤 8

20이 넘었다.)

그 밖에 化學工業에서 큰比重을 가졌던 고무工業은 그 性質上 高度의 技術과 機械化가 不必要한 勞動集約의 業種이므로 많은 群小工場들이 난립하였고 그 大部分은 民族企業이었다. 그 中에서도 中央商工 大陸고무 朝鮮고무 三和 고무 平安고무 天一고무 등은 규모가 큰 民族企業의 데이다. 이를 고무工場의 分布는 대부분이 서울 釜山 平壤등 大都市에 集中되었고, 그 밖의 일부가 靑山 木浦 元山등에 위치하였다. (표 10 참조)

以上에서 열거한 肥料 油脂 고무외에 열거할 만한 化學工業 工場은 永安과 阿吾地의 石炭液化工場, 王子製紙新義州工場, 朝鮮皮革(堂山洞), 大田皮革, 大都市周邊의 성냥工場 등을 들 수 있다.

5. 結論 및 要約

本研究는 近代的인 工場 工業이 始作된 舊韓末에서 日帝末에 걸쳐, 韓半島上에서 展開했던 工業의 發達과 地域變動을 時期別로 追究해 보았다.

(1) 舊韓末…1890年代부터 시작된 開港과 더불어 近代工業에 對한 官·民의 열망이 漸增하자 政府는 殖產興業政策을 實施하였다. 이러한 政府의 노력으로 機械 造幣 織物 製紙등을 위한 官營工場이 設置 運營되었고, 1900年代를 전후하여는 民間企業으로 傳承 發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最初의 工業은 資本主義의近代化가 한발 앞섰던 日本帝國主義의 經濟的侵略에 휘말려, 그 結實을 보기도 전에 日本의 植民經濟體制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 서울을 中心으로 胎動했던 工場 工業은 그 뒤 韓半島 工業立地의 中心軸을 形成

해 나가는 原動力 또는 慣性의 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日帝 初期…初期의 工業은 日帝가 自國經濟의 保護와 植民地 收奪이라는 政策下에서 原料取得과 製品消費가 용이하고, 群小資本과 現地人들의 單純勞動力を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業種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當時에 設立된 主要工業이 酿造 精米가 43%, 織維가 33%나 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工業의 地域展開는 京仁·平壤·新義州, 大邱·釜山의 3大地域에 62% 이상이나 集中하고 있었다. 그 理由는 이들 地域이 傳統의 民口稠密地域일 뿐 아니라, 日本 居留民이 大量進出하고 있던 交通과 政治의 中心地位가 때문인 것으로 본다.

(3) 日帝 中期…1次 大戰의 戰時需要로 激烈히 張창하였던 日本經濟가 戰後의 不況을 打開키 위하여 活潑히 韓半島로 進出한 時期이다. 따라서 初期에 비하여 많은 工場들이 建設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消費財 輕工業 중심의 業種配慮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初期와 다른점은 工場數와 從業員數가 5.5倍와 3.5倍로 增加하였고, 그들의 經濟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肥料 시멘트 고무 油脂等 業種이 추가로 建設된 것이다.

中期 工業의 地域展開도 初期와는 大差가 없으나, 京仁 中心에서 慶南地 平南地등으로 그比重이 分散擴大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4) 日帝 末期…日帝는 1931年 滿洲侵略, 1937年 中國本土 侵攻, 1941年 太平洋戰爭의 발발과 더불어 韓半島에는 “大陸前進 兵站基地化”라는 新經濟體制속에서 戰時態勢 強化를 위한 重化學工業의 建設이 本格的으로 進行되었다.

따라서 本期間中에 發達한 主要業種은 製鐵 製鍊 化學 油脂 시멘트 機械등 軍需工業의 性格

을 뛴 部門이 中心이었다. 즉, 食品 織維工業은 1930年 全工業生產額의 70.6%를 차지하였으나, 1940年에는 35.3%로 相對的인 比重이 減少된데 比하여, 金屬 機械 化學은 16.5%에서 46.2%로 급격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는 當時의 工業이 韓民族 自體와는 無關한 方向으로 發展해가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工業의 地域展開에 있어 서도 커다란 變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1930年까지 全國工業의 分布 中心地域은 京仁 慶南北 平南北의 3大地域이었으며, 咸南北은 全國 工產額의 9%에 불과 하였으나 1940年에는 32.7%라는 높은 比重을 보이고 있다. 이는 末期의 工業이 主로 各種 天然資源이 豐富하고 戰略的 的目的地에 接近된 東北地域에 集中 發達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5) 業種別 工業의 地域展開…食品工業은 京畿 慶南北 平南北 全南北등 人口稠密地域을 中心으로 分布하고 있다. 當時의 食品工業의 精米 蘑造 간장 水產物加工등이 大宗을 이루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原料產地에 接近된 이들 都市地域에 食品工業이 立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纖維工業도 역시 京仁 大邱 瓜山 平壤 光州 木浦등 原料의 集散이 용이한 전통적인 都市地域에 集中 分布하고 있다. 또한 섬유공업은 韓國에서 가장 오랜 傳統을 갖는 手工業에서 비롯된 業種이므로 어느 業種보다도 民族企業에 의한 工場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金屬工業은 鐵礦石을 비롯한 각종 鐵物의 埋

藏이 풍부한 黃海 咸南北을 中心으로 分布하고 있다. 특히 金屬工業이 어느 業種보다도 南北差가 激甚하였던 것은 바로 天然資源 賦存의 地理에서 오는 立地 指向 때문이다.

機械工業은 綜合的인 性格이 강한 業種이므로 各種工業이 集中되고 淬鍛水準이 높은 京仁(기계·차량등)과 瓜山(조선 기계)地域에 強하게 指向되어 立地하고 있었다.

鑄業中에서 시멘트工業은 주로 黃海 咸南北에 도자기 식기 기와등 제조업은 京畿 慶南 平南등에 주로 集中 分布하고 있었다. 前者は 原料 指向 立地이며, 後者は 原料보다는 市場에 指向된 立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化學工業은 咸南北에 70% 以上이 集中分布하고 있으며, 그 외에 大都市가 있는 京仁 慶南北 平南등에도 分布하고 있다. 咸南北은 주로 肥料 油脂가 中心이며, 그외 地域은 성냥 고무 製紙 皮革등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 前자는 電力과 原料, 後자는 消費市場에 指向되어 工業이 立地한 代表의 예이다.

結果的으로 日帝 初·中期中 韓半島의 工業은 西南部 地域을 中心으로 市場指向性의 消費財 工業이 經濟內的 要因에 의하여 서서히 成長되어 왔다. 그러나 末期에 와서는 大陸前進 兵站 基地化라는 강한 經濟外의 要因에 의하여 東北部의 原料賦存地域을 中心으로 重化學工業의 급속한 발달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韓半島 工業分布의 中心軸은 西南部에서 東北部에로 크게 轉移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서울大 師大 副教授)

Developmental Process and Regional Change of Korean Industry under the Japanese Control period

Jae Kie Hwang*

Summary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and the regional change of major industrial area from the end of Yi Dynasty when modern manufacturing system first appeared to the last stage of the Japanese control. The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ional patterns for three recognizable perio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before the end of Yi Dynasty : The beginning of Korean manufacture was a kind of factory system mainly distributed in the Seoul area, which was manag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However, before reaching to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e and expanding to private ownership, it came under the Japanese influence.

2. The period between 1910 and 1930 : The final demand oriented light-industry was gradually developed as a major par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is period. Such progress

closely related with the security of the Japanese mainland industry and further extraction of Korean raw materials for their needs. The major industrial area developed was in the southwestern portion of the nation where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y.

3. The period between 1930 and 1945 : This period is characterized by rapid development of heavy chemical industri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nation which was accessible to hydroelectricity and rich deposit of raw materials, and strategically had many advantages in location. The cause of the accelerated development in this period came from intentions toward the imperial war preparation rather than a general economic process. Thus, the direc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the willingness of Korean people. Along with this line of the Japanese policy, the central area of major industrial distribution was shifted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country to the northeastern area.